

자연에서 교감하는 사하 자연학교

2017년 가족 탐방 프로그램 확대 운영



2017년 상반기 사하 자연학교 운영 일정

- 가족 탐방 프로그램 : 4월 8일 · 15일 · 22일 · 29일 / 5월 13일 · 20일 · 27일 / 6월 10일 · 17일 · 24일
- 기관 탐방 프로그램 : 4월 11일 · 25일 / 5월 16일 · 30일 / 6월 13일 · 27일
- 신청 :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http://LLL.saha.go.kr>) · 문의 : 사하구 평생학습관 (220-4117~8)

사하 자연학교가 4월 8일 활짝 문을 연다. 화·토요일 오전 10~12시 물운대와 승학산 일대에서 화요일은 유치원(6세 이상), 학교 등 기관 위주로, 토요일은 가족단위로 진행된다.

사하 자연학교는,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생태문화해설사 과정을 통해 양성된 '생태고우니'로 강사진을 구성하였다. 이들이 직접 물운대와 승학산 곳곳을 다니며 체험에 적합한 곳을 코스로 개발했다. 2013년 물운대 곰솔길, 갯바위길, 산새길, 파도길 4개의 탐방로를 시작으로 2015년 승학산 물소리길, 숲소리길을 추가 개발하여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생태고우니들과 함께 계절마다 달라지는 나무, 꽃, 풀, 곤충을 알아보고, 자연물 만들기 와 놀이를 통해 자연과 친해지는 방법을 알아가다 보니 탐방객들의 만족도도 높다. 2013년 21회 432명 참여하였던 것이, 해가 거듭될수록 점차 늘어 2016년에는 43회 785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토요일에 진행되는 가족 탐방은 인기가 높아 올해부터 확대운영될 계획이다.

신청은 3월 초부터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LLL.saha.go.kr>)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따뜻한 봄 사하 자연학교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길 바란다.

김수현 평생학습 구민기자
16mmstory@hanmail.net

배움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사하아카데미

제72회 사하아카데미가 3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 사하구청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따뜻한 나눔을 통한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방송인 이광기 씨가 강연을 한다. 이광기 씨는 텔런트, 방송인으로 태조왕진, 정도진 외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하였고 최근에는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몸소 나눔을 실천하는 나눔전도사로서도 유명하다. 2017년 첫 사하아카데미인 이광기 씨의 강연을 들으며 나눔의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강연 1시간 전인 오후 2시에는 신나는 노래교실이 열리므로 일찍가서 흥겨운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2017년 사하아카데미는 3월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세번째 수요일 오후 3시에 있으며 7~8월은 제외된다. 사하아카데미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을 시작하여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하의 대표적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작년에는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10회 개최하였고 4,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가하였다. 특히, 12월 14일 열렸던 오정혜 국악인의 '아름다운 우리음악의 멋과 흥' 강연은 아리랑 등 아름다운 우리 판소리를 들려주고 추임새도 배우며 강당을 꽉 메운 주민들과 함께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가져왔다. 올해도 다양한 세대, 다양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사하아카데미에 사하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드론과 함께 비행하는 꿈나무

사하구 첫 드론 강좌 열려

무인항공기인 드론은 최근 민간용으로까지 보급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사하구 평생학습관도 드론기초 강좌를 열었다. 겨울방학 동안 초등학교 고학년 25명을 대상으로 드론의 이해, 조립, 체험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수업은 학생들에게 드론의 흥미유발을 통해 드론의 효과적인 사용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비행환경이나 운용법 등을 익히고 드론이 편리하고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드론의 미래 사업의 가치를 알려주어 학생들의 진로의 방향도 제시했다. 남문원 강사는 "학생들의 활기찬 학습태도를 통해 드론의 밝은 미래와 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게 된다."고 흐뭇해한다. 드론기초를 배운 초등학생들이 지난 2월 4일(토) 사하구청 대강당에서 비행 연습을 했다. 대강당은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로 분주했다. 두 팀으로 나누어 학생들의 비행 조종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서툴고 거칠게 날던 드론이 점차 부드럽게 날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조종에 따라 상하좌우 회전하다가 사뿐 내려앉는 드론의 모습이 마냥 신기했다.

"정말 신기해요. 저 조그만 날개 4개로 날아가는 것부터가 신기했어요. 날개 4개짜리 드론을 쿼터콥터라고 해요." 최우림(낙동초4) 학생은 자못 진지한 표정으로 말한다.

"드론이 하는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드라마 촬영 뿐 아니라 농사지을 때 농약도 뿌릴 수

있고요.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할 수도 있어요." 방송 일을 하는 게 꿈이라는 정원진(다대초6) 학생은 드론 공부도 더 하고 싶다고 말한다.

어린 학생들의 말을 들으며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이 얼마나 알차게 배웠는지 저절로 감탄하게 된다. 바람을 일으키며 나는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어린 학생들의 함성이 대강당을 꽉 채우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어 오른다.

드론비행촬영과 영상제작 강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3월11일~4월15일 있을 예정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하구 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051-220-4117)

이미성 평생학습 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차량 정비 어렵지 않아요!

내 손으로 직접 자동차 점검하는 '자가 운전정비'

'자가 운전정비' 강좌가 지난 2월 4일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종강을 했다. 평생학습관은 겨울특강으로 1월부터 매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자가 운전정비'를 개설했다. 30명을 정원으로 모집을 했는데 수강하려는 대기자가 많아 40명으로 정원을 늘렸다고 한다.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실용강좌가 인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차 점검방법에 대해 배우고 싶거나 친환경 운전법에 대해 배우고 싶은 주민들이 그 대상이었다. 차를 타고 다니나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여성 수강생이 많이 수강했지만 50대 이상의 남성 수강생들도 꽤 있었다.

1, 2회차 수업은 평생학습관에서 교통사고와 차량관리에 대한 이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권영진강사는 본인의 조카를 예시로 들어 수강생들에게 쉽고 친근감있게 이야기를 풀어갔다.



3, 4회차 수업은 토성동에 있는 부산자동차직업학교에서 현장 실습으로 이뤄졌다.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 실습이 어려웠는데 부산자동차직업학교의 배려로 실습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수강생들은 직접 워셔액도 넣어보고 에어컨 필터도 교환해 보고 전면 유리창 브러쉬(와이퍼)

도 교환해 봤다. 여러번 반복하니 이제는 간단한 정비는 정비소에 가지 않더라도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뿌듯해했다.



"겨울철 차의 엔진열을 식혀주는 냉각수는 물과 부동액을 1:1로 섞어서 넣어야 한다. 물만 넣었을 때는 내부에 녹이 생기거나 얼어서 큰 고장을 일으킨다. 자가 방진되었을 때를 대비해 항상 점프선과 기본공구를 차에 가지고 다녀야 한다. 마트에 파는 점프선은 내부 선이 가늘어 소형차에 적합하다. 스페어타이어가 무겁지만 연비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 등 수강생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 권영진강사는 친절하게 일일이 대답해 주었다.

수강생 김정미(하단동, 61세)씨는 "기본적인 차의 점검법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손정식(하단동, 77세) 어르신은 "강좌시간을 늘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차량점검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남겼다. 전반적으로 수강생들은 실질적인 강좌에 만족했고 생활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강좌가 계속되었으면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정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대학교에 가야만 학사가 되나요

언제나 어디서나 공부하여 학사되는 독학학위제

우리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굳이 대학교에 가지 않아도 저렴한 비용으로 스스로 공부하여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최소 1년 만에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독학학위제가 그 제도이다.

대학에 입학하거나 교육기관에 다니는 대신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평생학습시대의 자아실현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학위를 받을 수 있으며 이중 학적에 적용되지 않아 대학 재학 중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독학학위제에는 총 11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심리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가정학, 컴퓨터과학, 정보통신학, 간호학전공 등이다. 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과정을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한다. 독학학위제로 취득한 학위는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는다. 시험은 1년에 과정보로 한 번씩 있다. 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

과정 시험은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지만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세 과정 시험에 모두 합격한 경우, 면제된 경우, 대학교 3학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경우, 105학점 이상을 보유한 경우이다.

독학학위제로 필요과목을 모두 이수했을 경우 교육부 발급 학사졸업장을 수여 받을 수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학점은행제에 학습자 등록을 하고 학점인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학교에 갈 기회를 놓친 만학도, 취업이나 이직 승진을 준비하는 직장인, 빠른 진학을 원하는 입시생, 학사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를 적절히 이용해볼 것을 권한다. 자세한 것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bdes.nile.or.kr)를 참고하면 된다.

최진 평생학습 구민기자
jini3259@hanmail.net

구민이 행복해지는

2017년 사하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네일아트 국가 자격증 대비반 강좌를 시작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2017년 사하구 평생학습관 상반기 프로그램이 활짝 열렸다. 사하구는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민들의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을 준다. 올 상반기에는 사하구민 및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570여명을 모집하며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인문교양과 문화예술 시민참여프로그램으로 19개 강좌가 개설된다. 주간 9개 강좌, 야간 7개 강좌, 주말 3개 강좌로 운영된다.

주민의 학습욕구 충족과 취·창업능력 향상과 지역 내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학습 프로그램이 더 알차게 제공된다.

전체 18개 강좌 중 11개 강좌가 올해 신설된 강좌이다. 그 중 '평생교육으로 행복한 세상 강좌'는 평생교육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연극으로 표현하는 수업

으로 향후 지역행사에도 참여하여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개설되었다.

남성을 위한 왕초보 요리교실과 아빠와 함께하는 주말베이킹교실은 남성을 위한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역남성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 본다.

상반기 강의는 2017년 2월초부터 모집을 시작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온라인, 모바일, 방문신청 가능하며 강좌별 선착순 접수다. 온라인 신청은 <http://LLL.saha.go.kr>에서, 스마트폰은 사하구 평생학습관 앱에서, 방문 접수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전과목 무료이며 교재비 및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이다

올해도 사하구민 누구나 신청하여 늘 배우며 즐겨 마음이 풍족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이경녀 평생학습 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연번	구분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모집인원	운영기간	요일	시간	비고	
1	주간	넵킨공예지도사 (종이그림아트)	사하구민	20명	3. 6. ~ 6. 19. (총15회, 30시간)	월	10:00~12:00	재료비6만원 검정료별도	
2		정리수납 매니저 양성과정	사하구민	30명	3. 7. ~ 4. 25. (총8회, 16시간)	화	14:00~16:00	교재비15천원 검정료5만원	
3		파워스피치 기초과정	사하구민	30명	3. 14. ~ 5. 30. (총12회, 24시간)	화	14:00~16:00	교재비1만원	
4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대비반	사하구민	20명	3. 2. ~ 5. 31. (총24회, 72시간)	수,목	10:00~13:00	재료비18만원	
5		자기주도학습코치 양성	사하구민	40명	3. 2. ~ 5. 25. (총12회, 24시간)	목	10:00~12:00	교재비15천원 검정료7만원	
6		그림책을 통한 자녀소통법	사하구민	30명	3. 13. ~ 5. 22. (총10회, 20시간)	월	10:00~12:00		
7		일상을 담은 기사쓰기 * 사하배움마당 평생학습 관련 기사 투고 가능	구민기자, 글쓰기강좌 1회이상 수료자	30명	3. 8. ~ 5. 31. (총12회, 24시간)	수	10:00~12:00		
8		고우니 인문학 아카데미	사하구민	50명	3. 2. ~ 5. 11. (총10회, 20시간)	목	14:00~16:00		
9		평생교육으로 행복한 세상 평생교육연극 홍보단 1기 *수료후 지역봉사연계	사하구민	20명	3. 3. ~ 5. 12. (총10회, 20시간)	금	10:00~13:00	재료비 5천원	
10		야간	영화와 함께하는 인문학	사하구민	40명	3. 6. ~ 4. 24. (총8회, 16시간)	월	19:00~21:00	
11			남성들을 위한 왕초보 요리교실	40~60대 남성	20명	4. 3. ~ 6. 12. (총10회, 20시간)	월	19:00~21:00	준경요리학원 재료비7만원
12			셀프인테리어 '아름다운 휴식'	사하구민	30명	3. 7. ~ 4. 25. (총8회, 16시간)	화	19:00~21:00	재료비3만원
13			인문학으로 접근하는 미술 - E.H. 고프리치를 중심으로	사하구민	50명	3. 2. ~ 5. 25. (총12회, 18시간)	목	19:30~21:00	교재비3만원
14			SNS와 블로그 활용법	사하구민	30명	3. 7. ~ 5. 23. (총12회, 24시간)	화	19:00~21:00	전산교육장
15			배우로 배우다 연극스쿨(입문)	사하구민	30명	3. 9. ~ 6. 22. (총15회, 30시간)	목	19:00~21:00	봉사활동 가능자
16		주말	아빠와 함께하는 주말 베이킹 교실	부모 & 자녀 (초등이상)	1차시당 4회 10팀	1차: 3. 4. ~ 3. 25. 2차: 4. 1. ~ 4. 22. 3차: 4. 29. ~ 5. 27. (총12회, 24시간)	토	10:30~12:30	봄뜰재능학원 재료비 1차시(4회) 2만원
17			소형 목제카약 제작	사하구민 또는 부모&자녀 (중학생 이상)	20명	3. 18. ~ 5. 27. (총10회, 40시간)	토	10:00~14:00	재료비 20만원 (3인팀 카약 공동소유)
18			드론비행촬영과 영상제작	사하구민	15명	3. 11. ~ 4. 15. (총6회, 24시간)	토	10:00~14:00	교부비 12만원 (본인소지)



사하구는 지난해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를 14개 동아리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다. 2월의 첫 주 오후 연합회 초대회장인 박성환(55) 씨를 만났다.

박성환 회장은 8년 전 뜻있는 사람들과 늘봄풍물단을 만들어 단장을 맡고 있다. 늘봄풍물단은 20여명의 동아리회원들이 활동하는 풍물동아리로 지역의 여러 축제에서 공연봉사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신평1동 효도잔치, 재래시장 살리기 행사에 신나는 풍물한마당을 펼쳤고, 정월대보름 행사에도 초대받아 공연을 할 것이라 한다. 매주 토요일마다 신평1동 주민센터에 모여 연습을 해오고 있으며 회원간 친목이 매우 돈독하다고 한다. 현재는 사하구와 신평1동 지역에서 제법 인기 많은 풍물단으로 부산국악예술제에도

아름다운 그대

끼와 열정이 넘치는 참 일꾼 사하구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박성환 회장을 만나다.

참여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동아리이다. 동아리 활동 외에도 부산시 국악예술연합회, 사하구 생활문화예술연합회에서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유총연맹 신평1동 부회장, 동매사랑 누리회, 나눔밥상 운영위원 등 지역을 위한 봉사단체에서 활

동하며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자신의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지난해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출범시 초대회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동아리들의 네트워크 구성으로 보다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어 수락하였다고 하며 올 한해 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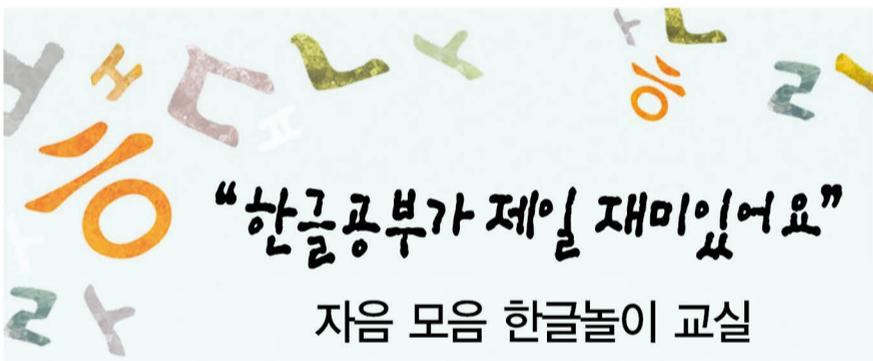
계획과 포부도 밝혔다.

“동아리연합회 전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연과 학습이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을 열고, 사하구 내에서 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우수 동아리연합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취미활동에서 시작한 풍물동아리가 지금은 다양한 지역축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즐거워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풍물공연봉사를 계속 할 것이라 한다.

박성환 회장이 이끄는 풍물단 공연을 사하구 여러 축제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열정과 끼가 넘치는 그의 활동에 감사와 함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안옥순 평생학습 구민기자
an5035@hanmail.net



“한글공부가 제일 재미있어요”

자음 모음 한글놀이 교실

사하구 평생학습관 직원들은 작년 여름에 여러 시장과 골목 구석구석을 누볐다. “한글 배우러 오세요. 주변 어르신들께 한글놀이 교실 소개시켜주세요.” 라며 한글교실 홍보를 했다. 한글을 잘 모르는 수강생 대상이라서 직접 발품을 팔며 모집했다. 처음엔 3명으로 한글 수업이 시작되었다. 지금은 50대에서 80대까지 여러 연령층의 수강생들이 한글교실의 문을 연다.

처음부터 참여한 임복순(70세·신평동) 씨는 치매 안 걸리고 건강을 위해서 한글을 배우러 다닌다. 글을 깨우쳐서 내 살아온 날을 일기로 쓰고 싶다고 하며 벌써 책 제목까지 정해 놓았다고 한다. 임복순 씨는 “자로 재면 끝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 라고 한글교실 강사인 은현범(30세·화명동) 씨에게도 조언을 한다. 이렇게 한글교실의 강사와 학생은 가르침을 주고받는 관계다. 은현범 강사는 한글을 가르치면서 내가 더 많이 얻어간다고 이 점이 한글교실의 최대 장점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강

사는 “어르신들이 한글이라는 꿈에도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나이, 성별, 시간 등 어떤 것에도 제약 없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다. 덕분에 같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며 보람과 감동을 전한다. 수강생 서윤화(77세·신평동) 씨는 멀리 연산동까지 한글을 배우러 다녔다고 한다. 지금은 가까운 곳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어 너무 좋다고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지난 번에는 화장품 만들기 수업도 했다는 자랑과 함께 그래도 한글공부가 제일 재미있다고 환하게 웃는다. 그리고 나 같이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평생학습관 한글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한다.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매주 월, 수 오후 2~4시 사하구 어르신 누구나 무료로 한글을 배울 수 있다.

접수 : 평생학습과(220-4801)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남성만을 위한 봄맞이 이색프로그램

주말 베이킹 교실과 왕초보 요리 교실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는 봄철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상반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그 중 남성들을 위한 이색 요리 교실이 눈에 띈다.

먼저 아빠와 함께 하는 주말 베이킹 교실(1차)은 3월 4일 오전 10시 30분 봄뜰 제빵 학원에서 운영된다.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고 즐길 수 있는 간식을 만드는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자녀와 아빠를 대상으로 한다. 매주 토요일마다 4주간 진행되는데 재료비는 회당 5천원이다. 2월 6일 상반기 프로그램 수강신청이 시작된 후 가장 먼저 마감될 정도로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이다. 2차(4.1~4.22), 3차(4.29~5.27) 교실도 계속해서 모집할 계획이다.

자녀와 함께 베이킹을 하면서 가족 간의 정을 새롭게 발견할 아빠들의 모습! 더 이상 낯설지가 않다. 행복이라는 이름의 빵이 탄생될 아빠와 함께 하는 주말 베이킹 교실이 기대된다.

40~60대 남성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남성들을 위한 왕초보 요리 교실도 조기 마감에 예상되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생활에 필요한 손쉬운 요리 20가지를 요리 왕초보 남성들을 위해 개설한다. 4월 3일 저녁 7시 춘경 요리 학원에서 시작하여 6월 12일까지 10회 진행되며 재료비는 7만원이다. 그간 요리를 모

르고 두려워하던 남성들이 “남성들을 위한 왕초보 요리 교실”을 통해 숨은 요리 실력을 발견하는 신세계를 맞이할지 기대한다.



김광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secan57@hanmail.net

2017년부터 사하배움마당이 두달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6년 창간된 주민이 만드는 사하구 평생학습 소식지인 사하배움마당이 분기별에서 격월 발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하배움마당은 사하구 주민인 평생학습 구민기자가 만드는 신문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 또는 좋은 의견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220-4802
deok501@korea.kr



배웠으니까 나누고 싶어요

생활공예품으로 사랑받는 리센

종이 한 장으로 선물 포장 가능할까. 접고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보니 신기하게도 아주 예쁜 종이봉투가 완성 되었다. 리센동아리는 2012년부터 결성된 사하구 평생학습관의 동아리 모임이다. 월 1회 모임과 연구수업을 통해서 천연화장품, 캔들, 비즈, 퀼트, 리본만들기, 양갱만들기, 떡만들기 등을 선물포장과 접목하고 있다.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함께 공유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진 공예품들은 동아리활동에 활기를 주고 있다. 현재 회원들은 강사자격증을 취득해서 강의활동과 공방운영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다대동에 있는 기쁨지역아동센터와 기쁨재가복지센터에서 월1회 재능기부 봉사자로 수업을 하고 있다. 기쁨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엄마 냄새가 나요.” 하며 수업 날을 기다린다고 한다. 총무 강은정(38세·하단동)씨는 강의를 할 때는 아이

들의 엄마가 되어서 수업을 진행한다. 기쁨재가센터 어르신들은 수업을 통해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기도 한다.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리떡, 개떡과 같은 옛날 음식을 소재로 삼는다고 한다.

리센동아리는 사하구에서 열리는 중요한 평생학습 행사마다 참여하여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체험자들은 완성



된 공예품을 보고 만족스러워한다. 강은정씨는 회원들이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관심을 가져주는 주민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동아리회원 김영남(48세·다대동)씨는 “배웠으니까 뭐든지 하고 싶어요.” 배운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봉사를 통해서 재능을 풀다보니 봉사의 기쁨과 실력을 쌓을 수 있어서 더 동아리활동

에 애착이 간다고 했다. 어르신들에게 소근육운동을 할 수 있는 선물 포장을 하고 비누 향을 함께 맡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리센동아리를 알리고 싶다고 했다.

리센동아리는 신입회원들과 함께 체험과 봉사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익적 측면에서도 이익을 창출해 볼 계획이다. 동아리활동으로 만든 공예품은 3월부터 빛꽃축제를 시작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리센동아리는 재능기부 활동과 더불어 가정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이다.

손현아 평생학습 구민기자
ssnyen@hanmail.net

장림2동 아동들의 따뜻한 쉼터

한마음다문화지역아동센터

한마음다문화지역아동센터는 소외된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집에 돌아가기 전 잠시 들르는 곳이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대부분이지만 결혼가정이나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의 쉼터이기도 하다.

2011년에 개관한 이후로 현재 29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센터 아동들은 반갑게 맞아주는 사회복지사의 지도로 간식을 먹으며 따뜻한 사랑을 배운다.

요일별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

수준별 수학, 영어 학습, 미술수업을 하고 기초학습지도를 받는다. 특히 적성프로그램으로 난타와 플룻 수업도 한다. 소리 내어 책읽기 연습과 시청각 교육도 하고 있다.

센터 아동들이 빈곤과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5대 의무교육과 아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자연체험학습, 연극, 뮤지컬 관람, 1박2일 캠프 등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센터 아동들의 정서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한마음다문화지역아동센터는 정기, 수시 상담을 통해 아동들을 관찰하며, 부모교육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하구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입소 가능하나 전화 또는 센터 방문 상담 후 시설이용 등록을 할 수 있다. 남해진 사회복지사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라고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것은 부당해요. 외모가 조금 다르거나 말이 약간 어눌할 뿐이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라고 말한다.

또 주민들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다른 나라 말을 해보라 하지 말기를 당부했다. 조금만 배려한다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 본다.

문의 : 한마음다문화지역아동센터
(051-266-5656)

강경화 평생학습 구민기자
wy0823@naver.com

그림책 재미에 빠진 어른들

당리 작은 도서관 독서 모임을 찾아서

사하구에는 작은 독서모임이 여러 개 있다. 그 중 당리 작은도서관 독서모임 ‘그림책의 그림읽기’가 활발하다. 지난 2월 1일, 십팔개월 된 아기 엄마와 그림책에 푹 빠져 있는 유치부와 초등학생 학부모, 사오십 대의 주부 육십 대의 할머니 등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 날은 ‘그림책의 그림읽기’ 책 속에 있는 ‘커다란 것을 좋아하는 임금님, 피터 래빗이야기, 로지의 산책, 갈색 아침’ 등 여러 권의 그림책을 읽었다. 그 중 소통이야기를 담은 ‘탁탁 툭툭 음매~ 젓소가 편지를 쓴대요’ 라는 그림책을 소개한다. 그림책에 나오는 브라운 아저씨는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다. 요즘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 그건 바로 젓소들이 하루 종일 ‘탁탁, 툭툭, 음매~ 철컹, 툭툭, 음매~’ 하면서 시끄럽게 타자를 치기 때문이다. 타자를 칠 수 있게 된 젓소들은 브라운 아저씨에게 편지를 보낸다.

타자를 치는 젓소를 보면서 환갑진갑을 다 보낸 할머니 회원은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가 떠오르다며 재미난 발상이라 하였다.

농부는 헛간이 너무 추워서 밤마다 덜덜 떨다며 전기담요를 깔아 달라고 요구하는 젓소들의 편지를 보았다. 헛간에다 낡은 타자기를 놔둔 게 잘못이라고 후회하는 브라운 아저씨는 딱 잘라 말했다.

“어림없어! 전기담요는 안 돼!” 그러자 젓소들은 다시 편지를 보냈다.

“미안합니다. 오늘은 쉽니다. 우유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젓소들 올림.

젓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파업을 하였다. 농부와 젓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과정을 그려낸 그림책이다.

초등학생을 둔 엄마는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으면 읽는 방법과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 서로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한다. 대화 내용과 소재가 풍부해져서 너무 즐겁다고 전한다. 한 회원은 그림책에 숨겨진 작가의 의도를 알게 되어 책을 보는 안목이 높아졌다고 뿌듯해 한다. 평소에 책 읽기를 즐겨 하지 않아 그림책 읽기 회원이 되었지만 최종 목표는 동화 작가를 꿈꾸는 사람도 있다.

수업을 재미있게 이끌어 주는 안소영(50세·당리동)씨는 회원들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감동받고 즐거워 할 때 재능기부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3월부터는 하단동 ‘꿈길 작은도서관’으로 장소를 옮겨 월 2회 그림책 그림읽기 동아리 모임이 계속된다.

하숙자 평생학습 구민기자
ssaksil@hanmail.net

